

우지강 우카이 ~장인과 가마우지가 만드는 화려한 세계~

교토부 우지시를 흐르는 우지강에서는 매년 여름 밤에 「우지강 우카이」가 행해집니다.

우카이란 가마우지라고 하는 새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일본에서는 1000년 이상 전부터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지강 우카이에서는 그 모습을 관람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마우지는 목구멍 안쪽이 수축할 수 있는 주머니와 같이 되어 있어서 목에 물고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 가마우지의 목을 끈으로 묶어서 입으로 잡은 물고기를 목에 모으면 그것을 우쇼 (고기잡이 하는 사람)가 입에서 뱉어내게 합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 의상을 입은 우쇼가 6마리의 가마우지를 조종해 물고기를 잡습니다.

우지에서는 특히 여성 우쇼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고 또 우카이를 실시하는 우부네(우쇼가 타고 있는 배)와 여객선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는 순간이나 우쇼가 물고기를 뱉어내게 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부네에는 횃불이 켜 있고, 수면 위에 비치는 횃불이 출렁이는 듯한 가운데 행해지는 우카이는 매우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기간 7월 1일(월요일)~9월 30일(월요일)

승선 장소 교토부립 우지 공원 나카노시마 기센바시(다리) 부근 (우지바시 상류 토노시마)

JR·게이한 「우지역」 하차

요금 승합선 어른 2000 엔 초등 학생 1000 엔

시간 <<7/1~8/31>> <<9/1~9/30>>

접수 17:00~ 접수 17:00~

승선 18:30~ 승선 18:30~

출발 19 : 00

출발 19 : 00

관람 시간 약 1시간

* 악천후 또는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면 중지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쇼】

가마우지를 조종하는 사람을 우쇼라고 부릅니다. 우지에는 3 명의 우쇼가 있으며 그 중에 2 명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여성 우쇼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지강의 우쇼는 가자오레에보시 (머리에 두른 모자) 와 고시미노 (허리에 감은 짚으로 만든 도롱이) 라고 하는 전통 의상을 입은 1 명의 우쇼가 6 마리의 가마우지를 조종합니다. 우쇼는 한 마리 한 마리의 가마우지의 성격을 파악해서 당일 우카이에 데리고 갈 가마우지를 선택합니다.

기간 중에는 물론 연중 내내 가족과 다름없이 애정을 담아 가마우지를 돌보는 일도 우쇼의 중요한 일입니다.

【우 (가마우지)】

우카이의 주인공인 가마우지는 우미우 (바다 가마우지) 라고 하는 종류의 철새로, 펠리칸목 우과에 속합니다.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있어 강의 깊은 곳까지 잠수하여 재빠르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눈과 눈꺼풀 사이에는 순막이라고 하는 투명한 막이 있어서 물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며, 물속에서도 분명하게 물고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쇼는 포획된 야생 우미우를 훈련시켜 우카이로 활약할 수 있는 가마우지를 기릅니다.

우카이를 할 때에는 오이츠나라고 불리는 끈을 가마우지의 목과 몸에 장착합니다.

가마우지는 연중 토노시마에 있는 가마우지 오두막에 살며 우쇼가 매일 돌봄으로써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생깁니다.

【우미우노 윗티】

2014 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인공 부화로 태어난 우미우로, 윗티 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매년 인공 부화로 우미우가 태어나 현재 9 마리의 윗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쇼를 부모라고 생각하며 자란 윗티는 애교 가득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